

# 나만의 이야기 그림책에 담아보세요

### '남다른 그림책, 예술을 만나다' 전 29일까지 노대동 카페 디마레 '책문화공간 봄' 기획... 14명 참여

'나의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를 담다.'  
지난 2013년 광주시 남구 노대동에 문을 연 작은 도서관 '책문화공간 봄'은 문화예술과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독서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책 문화콘텐츠 결산 전시회 '남다른 그림책, 예술을 만나다' 전시 오는 29일까지 노대동 카페 디마레(남구 효우로 77번길 9)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그림책과 예술, 그리고 사람들이 연결돼 파생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은 기획이다.

14명이 참여해 진행된 올해 프로그램의 목표는 '그림책은 아이들만 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장르이고,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 보는 이에게 더 깊은 감동을 준다'는 점을 함께 알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두 갈래길', '알사탕', '고래가 보고 싶거든', '나는 기다립니다' 등 '봄'이 추천하는 다양한 그림책을 함께 읽고 감상을 나눴다. 또 자신들의 이야기도 풀어내며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양한 문화예술로 녹여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어떤 이는 한뼘 한뼘 지수를 놓아 자수책을 만들기도 했고, 다양한 서체의 캘리그래피, 포근한 느낌의 수채화로 좋아하는 그림책의 한 페이지를 재현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했다. 또 알록달록한 색감의 타피스트리 작품을 통해 들려주는 이야기는 또 하나의 책이 되었다.

전시에서는 강희자의 '민들레', 길영옥의 '베에로', 김광희의 '셔닝맘', 장우연의 '봉주르 마담', 송희경 '흡량'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너는 특별하다', '하지만 하지만 할머니' 등 참가자들이 함께 읽은 책과 추천 그림책도 소개하고 있다.

책문화공간 봄의 위명화씨는 "동네도서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었고 코로나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참여자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책문화공간 봄이 기획한 '남다른 그림책, 예술을 만나다' 전.(사진 위) 참여자들이 함께 읽은 그림책.



### 박진현의 문화카페

최근 워싱턴 D.C 자리한 스미스 소니언 박물관이 국제 미술계의 뉴스메이커로 등장했다. 워싱턴과 뉴욕에 19개의 미술관을 거느리고 있는 글로벌 미술관 인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금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19로 장기폐쇄되면서 적자가 늘어나자 정규직 239명을 해고하는 구조 조정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연간 운영비의 70%를 연방 정부로부터 총당해왔지만 나머지 30%를 조달하지 못해 인원감축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지난 7월 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문화예술계 지원에 약 2조3천억원을 투입하는 긴급구조계획을 발표했다. "미래 세대를

있는 구조를 정부로 일원화 하고 법의 발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용이 많이 소요될 법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개정법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회기내에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면 전당은 국가소속기관의 지위 상실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매년 55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법인이 확보해야 한다.

25일은 전당이 공식개관한지 5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의 장밋빛 미래를 담은 국책프로젝트로 출발했지만 동시대 현대예술의 발신지라는 정체성으로 대중성과는 거리가 먼 실용성이 강한 작품이나 콘텐츠가 많다. 이 때문에 여전

## 개관 5주년 맞은 ACC의 '비에'

위해 문화예술 분야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번 긴급지원에는 런던의 아이콘인 테이트모던 미술관도 포함됐다.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한 영국 정부는 2000년 개관 당시부터 예산의 70%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기업의 지원이 늘면서 정부 예산을 40%로 낮추는 등 재정 자립을 보였지만 코로나19를 맞아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ACC)의 운영체제를 정부 소속으로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특별)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문제위 문화예술소위원회에서 배제돼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015년에 개정된 '아특별'에 따르면 전당은 올해까지 정부가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관련단체나 법인이 운영을 맡게 된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이원화(아시아문화원, 전당)로 돼

히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못한 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특별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젠 막 걸음마를 시작한 전당이 수백 억원의 운영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전당의 정상화를 위한 아특별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스미스소니언이나 테이트모던처럼 세계적인 미술관들이 정부의 예산을 받는 건 재정자립이 얼마나 어려운 지 말해준다.

국민의힘의 '판지'를 보니 문득 지난 2015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몽니'가 떠올라 씁쓸하다. 당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매년 800억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전당관련 법안을 당리당략에 따라 (여야)비밀로 통과시켰다"며 지역사업으로 평가절하했기 때문이다. 흑역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인식이 5년 전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 깊어가는 가을 해금 선율에 취하다

### 해금합주단 이현 정기연주회 28일 광주 동구 미로센터

해금 선율과 함께 깊어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해금합주단 이현(회장 김혜숙)의 두번째 정기연주회가 28일 오후 3시 미로센터(광주시 동구 궁동)에서 열린다. 공연 주제는 '꿈의 날개를 펴다'. 공연은 1부 '떨림'과 2부 '그리움'으로 나누어 열린다. 1부에서 동요 '섬집아가', '가을밤'을 시작으로 '현 위의 노래', '놀라운 은총', '인연' 등이 이어진다. 초청강의시간에는 이광혁 호남대 교수가 강

사로 나서 강연을 펼친다.

2부에서는 해금 2중주로 들려주는 '상주함창변주곡'을 비롯해 '칠갑산', '홀로아리랑', '가시버시사랑' 등을 들려준다. 초청 연주 무대에는 생활연주자 신선민이 무대에 올라 생활연주를 선사한다.

고영란이 기획과 지도를 맡았으며 무대에는 김혜숙·고영주·김은주·박재현·윤승자·채명자·최귀자·최장완 등이 오른다.

한편 지난 2018년 결성된 이현은 '이현, 꿈의 날개를 달다'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동동동작음악회, 푸른길공원 융합페스티벌, 종장축제, 동구 마을문화예술공동체 한마음축제 등에 참여했다. 문의 010-5184-8631. /전은재 기자 ej6621@



28일 공연을 갖는 '해금 합주단 이현'

## 5·18 다룬 연극 '유혼' 공연

### 27~28일 예린소극장

치열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정의의 가치를 내걸고 이룩없이 사라져간 이들의 죽음을 다룬 연극이 펼쳐진다. 연극 '유혼'이 오는 27~28일 예린소극장(대표 윤여승·광주시 동구 궁동)에서 열린다.

'유혼'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목숨을 잃은 아들과 이후 40년간 수모와 별시를 당하며 살아온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룬다. 무침하게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죄인이 되어 살

아야 했던 굴곡진 과거사를 통해 5·18의 아픔을 되돌아보고 치유의 길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어머니는 어느날 굶을 통에 죽은 아들의 혼을 부르고, 구원을 맴돌던 이들의 낮은 어머니의 부름에 응한다. 아들의 혼은 가해자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바퀴지 않는 세월을 한탄하고, 어머니는 아들의 고통을 감싸안아 위로한다.

극은 윤여승 대표가 쓰고 연출했으며, 김홍정과 윤 대표가 출연한다. 관람료 1만원. 문의 062-223-269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토크쇼처럼 해설과 연주로 만나는 '라보엘'

### '오페라톡' 28일 문예회관 음악칼럼니스트 김문경 진행

토크쇼처럼 쉽고 재밌게, 해설과 연주로 푸치니 오페라 '라보엘'을 미리 만나보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해설이 있는 '오페라톡, talk!-라 보엘'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30~12월1일 열리는 '라보엘' 공연에 앞서 열리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오페라를 재미있는 해설과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소개해 작품의 이해도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음악칼럼니스트 김문경(사진)이 출연해 해설과 함께 공연을 감상하는 색다른 방법을 안내한다. 프로그램은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선착순 10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광주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거리두기 격차 시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문의 062-412-250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h3>제니골드(귀금속카페)</h3> <p>동구 충장4가 3-3 (광주 충장로 귀금속거리 사거리) 금(14k·18k·24k) 매입·판매 아메리카노, 자몽에이드, 진저리데, 생강차 대표 박형수 ☎ 010-8619-2954</p>	<h3>문화결혼상담소</h3>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p>	<h3>100세의료기 나주점</h3> <p>전남 나주시 나주로 211(성북동) 복지용구, 장애인, 보조기기, 환자간호용품, 위생용품 병원처방용 건강체크기, 가정소발생기대어 제할용품 각종 물리치료기, 찜질기 전동스쿠터 판매및수리 ☎ 061)930-1038, 010-8811-9116</p>	<h3>국수나무 광주신안점</h3> <p>북구 서암대로95 (신안교앞 고은@상가층) 각종 국수와 돈까스, 각종 식재료 ☎ 062)531-0331, 010-5511-0331</p>		
<h3>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h3>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h3>법무사 이영석사무소</h3> <p>동구법성로 16-1(자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계, 상속, 증여 등 상담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형사,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입찰기법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p>	<h3>보광세탁소</h3> <p>동구지산1동 동명로73-2(구.농장다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p>	<h3>법무사 김은희사무소</h3> <p>목포시 정의로26-4 범조하우스 3층 개인회생, 파산면책,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신탁등기, 공탁 ☎ 061)284-3005, 010-9477-4872</p>		
<h3>동양철학원</h3>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h3>필스제화</h3>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깔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p>	<h3>인철(仁喆)익스프레스</h3>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h3>웅추해신삼계탕</h3> <p>북구 저불로93(용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원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분위 ☎ 062)523-1003, 010-5355-0867</p>		
<h3>평화이사소파</h3> <p>북구 운암동 794-13(대자초등학교 옆) 가정용, 영업용 불박이, 톨소파, 업소용제작 천장이 리폼전문 각종 소파 천장이수리 및 제작 전문공방 ☎ 062)371-2110, 010-9404-3571</p>	<h3>석당화랑</h3> <p>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h3>하나부동산사무소</h3> <p>동구 계림동 254-4번지 주택·상가·토지·공장부지·임야 전문 각종 부동산매매 상담, 신용 본위 ☎ 062)233-5155, 010-3615-5155</p>	<h3>초대화랑</h3> <p>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h3>고전방</h3> <p>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h3>남도철학원</h3> <p>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p>	<h3>신신예술의집</h3> <p>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h3>대연건설</h3> <p>동구 제봉로 190번길 7-1(대인동) 건설행·설비·토목·공방·수도·하수도 ☎ 062)236-1510, 010-2630-4820</p>	<h3>매산철거·삼보소개소</h3> <p>북구 자산로 32 (신안동) 건물상가·집수리, 모래운반 폐기물처리, 고철 파지, 스티븐 특수미장, 조적, 방수, 철근, 콘크리트페인트 용접, 보일러수리, 비계, 잠·인부알선 ☎ 062)528-7005-6, 010-3625-2786</p>	<h3>박당화랑</h3> <p>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p>